

## 신의(信義)의 동산인



이철형 교감선생님

요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두를 보면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기계화), 2차 산업혁명(대량화), 3차 산업혁명(정보화)을 지나 이제 무서운 속도로 4차 산업혁명(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는 가상 물리시스템 구축) 시대로 접어드는 이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와 믿음'일 것입니다. 1938년에 개교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학교도 이미 이런 것을 알고 교훈을 '신의(信義)'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信'은 '人 + 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편에 보니 '信'의 의미는 '不疑(불의)-의심이 없음, 眞也(진야)-참되다, 明也(명야)-밝히다, 印也(인야)-도장, 任也(임야)-맡김' 등 다양한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信'이 사람[人]과 말[言]로 이루어진 것을 음미해 보면 '信'의 여러 의미와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信]에b는 의심[疑]이 없어야 하고, 참[眞]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는 어두움이 없이 밝아야[明] 하며, 믿음이 있을 때 도장[印]을 마음 놓고 찍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맡김[任] 수 있을 것입니다. 말[言]은 사람의 인격을 가능하는 척도입니다. 곧 말이 인격이지요. 말이 인격이 되려면 그 말이 참[眞]되어 믿음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요.

가족과 친구,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인보다 더 큰 신뢰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이 서로 만나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혼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간에 믿음을 가져야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학교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학교생활이 즐겁고 자연스럽게 학력이 향상되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며, 나아가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이, 선생님이 먼저 상대방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멋진 동산, 활화산처럼 늘 활활 타오르는 영원한 동산, 신의로 뭉치는 가족처럼 늘 아껴주고 배려하는 동산인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